

- 2019 한발제일교회 사생결단 기도회 2/22 - 방언

-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13-19)

1.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A. 다른 언어(different languages), 난 곳 방언(our native language),
각 언어(our own tongues)
B. 나의 영의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C. 거듭난 성도들의 새 방언

2. 다른 언어(different languages), 난 곳 방언(our native language), 각 언어(our own tongues)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사도행전 2:4)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사도행전 2:8)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11)

- A. 다른 나라와 민족의 언어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B. 다른 지방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것입니다.
C. 말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말이 어느 지방의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천국에서 있을 언어의 통일을 미리 맛보게 되는 데, 그것은
특정한 때에 부분적으로만 주어진다. 복음이 모든 국가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 결과 여러 국가에서 예루
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
었다. 이는 복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로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상징이었다. -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제53장 성령의 은사(2)”

3. 나의 영의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고린도전서 14:14-16)

A.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영의 기도가 인간적 이성으로는 이해되거나 깨닫지 못함을 말합니다.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2)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28)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방언기도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언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지적인 교만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인 영역에서 방언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 권성수, “성령으로 따라가는 조직신학, 교회론, 제9장 성령의 은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보아지도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은사를 주셨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여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시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시대에는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생, 참 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찬을 통하여 임하는 영적 축복, 영적인 전쟁, 하늘에 보화를 쌓아 놓는 일,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에 두는 일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우리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그렇게 볼 때, 방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또 다른 활동, 즉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활동일 뿐이다.

-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제53장 성령의 은사(2)”

B. 방언은 기도와 찬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말하는 화자 즉, 본인조차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자가 아니면 통변이 될 수 없습니다.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4)

C. 방언은 방언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27-28)

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40)

D.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사역이나 모임에서 통역의 은사가 없이 방언이 활용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언을 포함한 어떤 은사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이 나타났지만, 베드로가 일어날 설교할 때에는 다른 제자들의 방언들이 통제되었었습니다.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8-11)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30)

E. 방언의 은사가 모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증표로 해석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31)

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1)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39)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3-4)

F.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원어로, 더욱 활용적이며 유익하며 발전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사모되어야 합니다. 단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것인양 자랑하거나 내세워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19)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1-3)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8-10)

G.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부여 받은 자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현상은 새 언약 시대의 특이한 현상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다른 언어로 말할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타락 후에도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으나 점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의 죄악 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창 6:5). 이들의 한 가지 언어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을 때”에(창 11:1)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창 11:9)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신약의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영원한 미래를 보면, 언어가 다시 하나로 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데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을 볼 수 있다(계 7:9-12; cf. 습 3:9; 고전 13:8; 사19:18).

-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제53장 성령의 은사(2)”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9-12)

4. 거듭난 성도들의 새 방언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17-18)

- A. 하나님의 장자들의 권세, 즉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사망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 누리게 됩니다.
- B. 부정적 언어가 긍정적 언어로, 절망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 C.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의지하기에,
입술의 선포로 “새 방언” 즉, 이전의 삶에서 전혀 맛보지 못한 언어가
선포되고 누리지게 되는 것입니다.
- D.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입술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들로 변화되고,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8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8-13)